

19世紀末 慶尙監營建築의 配置構成에 관한 研究

조영화

(대경대학 교수)

1. 序

조선시대 官衙 중 지방행정직제의 최상층에 속하는 감사의 집무공간인 監營은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하지만 현존 유구의 절대부족과 사료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몇몇 주목할만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경상감영건축에 관련된 심층적인 연구¹⁾는 미약한 편이어서 이 부분의 연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00년대 초 일본인 학자인 關野박사는 대구의 많은 관아의 구조와 배치는 서울 이외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완비된 것²⁾이라 하여 경상감영이 8도 감영 중 규모가 광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상감영은 1601년에 대구로 移置된 후 3차례의 화재로 1806년에 최종적으로 건축하게 되는데 전국에서 가장 늦게 감영이 건설된 곳이다. 1800년대는 감영의 職制와 시설이 대부분 확정된 후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 감영건축의 배치특성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경상감영과 관련된 기록과 가시적인 자료인 지도와 사진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경상감영건축의 배치구성체계를 복원³⁾하여 그 배치구

성을 직제와 관련시켜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상감영건축이 최종적으로 고정화되는 19세기말을 대상시기로 삼았으며, 당시 대구의 관아는 監營을 위시하여 府衙, 客舍, 鎭營, 中營 등으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감영건축의 직접적인 시설인 감영과 여기에 부속된 중영만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2. 경상감영의 건축적 구성

2-1. 경상감영의 설치와 留營체제

(1) 경상감영의 설치

경상도의 감영은 개국 초에는 경주에 있다가 경상도는 타도에 비해 '면적은 넓고 인구는 많다'라는 이유로 태종 7년(1407)에는 낙동강을 경계로 강의 서쪽을 우도, 동쪽을 좌도로 分道하기도 하였고, 세종 8년(1426)경 합쳐서 상주에 감영을 두었다. 중종 14년(1519)에는 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 하여 종전의 구분대로 분도하여 우도감사는 상주목사를 겸하고 좌도감사는 경주부윤을 겸하게 하여 2명의 감사를 둔 적이 있었으나 기묘사화로 인해 동년 12월에 다시 환원되었다. 그 뒤 선조 25년 전란으로 도로가 불통되자 그해 8월에

1) 「경상감영 400년사」의 3편 2장에서 "경상감영건축"(조영화, 1998)이 언급되었다. 본 논문은 앞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 「大邱一斑」, 三輪如鐵, 1911

3) 현재는 감영의 주건물인 선화당과 정청각건물이 현지에 남아 있으며, 정문인 관풍루는 대구 달성공원에 이전되어 남아 있다.

分道하여 좌도는 경주, 우도는 상주에 設營하였다가 동왕 26년(1593) 10월에 다시 합치고 감영을 성주 팔거현에 설치하였다가 동왕 28년에 또다시 '地廣難治'라 하여 좌·우도로 분도했다가 동 29년에 다시 합쳐서 감영을 대구의 달성에 두었다. 그러나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으로 달성감영이 소진되자 還罷하고, 이어 동왕 32년(1599)에 안동에 감영이 설치되었으며 이 해 양계의 관례에 따라 2년마다 교체하였다. 그러나 안동은 감영으로서의 위치가 적합치 못하였으므로 선조 34년(1601) 체찰사 이덕형의 재차 장계로 일도의 중앙인 대구부에 감영이 정착하여 19세기 말까지 존속해왔다.

경상감영이 대구에 최종적으로 정착하였는데, 이 때 설치된 감영의 위치는 현 포정동 경상감영 공원자리이다. 그리고 감영은 그 사이의 얼마동안의 감영혁파기간을 제외하고 한일합방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존속해 있었다.

대구경상감영은 1601년 감영처로 고정되면서 한일합방때까지 세차례에 걸쳐 화재를 겪었는데, 1차는 1670년(현종 11) 3월 22일 영리청에서 발화하여 新舊의 문서 및 기록류가 모두 불탔다. 이로 말미암아 경성의各司는 경상도 왕복문서를 등사하여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⁴⁾ 화재의 원인은 감영의 吏胥輩가 공금을 횡령하였다가 문서를 소각함으로써 증거를 없애려고 방화한 때문이다. 2차는 관찰사 趙顯命의 부임시기인 영조 6년(1730) 7월에서 1732년 10월 사이로 추측되며 이 때 선화당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불타 신축하였다. 그 후 조현명이 신축하였는데 이전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하였다⁵⁾고 한다. 마지막 화재는 1806년(순조 6) 12월 3일 책실(비서실)에서 발화하여 징청각 23칸, 선화당 36칸, 여수각 12칸, 내아 36칸, 연초당 13칸, 좌우 익랑 36칸, 공고 28칸등 합계 184칸이 전소되는 대화재를 입었다. 그 후 1807년에 관찰사 尹光顔이 선화당, 징청각등이 증건하였다.⁶⁾

고종이 즉위하면서 제국침략에 대비하여 전국적인 修城공사가 이루어 지는데 大丘府城도 이 國策에 따라 고종 7년(1870)에 일대 수리가 이루어진다. 이때 수리 또는 신축되는 건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門樓 公廡는 신축이 72칸, 重築이 37칸이며 중수는 517칸이다. 그리고 公廡 각처의 보수는 256칸으로 '大丘邑城修城碑'⁷⁾에 기록되어 있어 총 882칸에 걸친 대대적인 공사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경상감영에만 어느 정도의 신축과 중축 또는 보수가 이루어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 시기에 감영의 면모가 일신하여 최종적인 감영의 모습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留營체제의 확립과 경상감영

조선전기에는 전국이 8도 체제하에 있으면서 도에 따라 감영과 감사의 직제에 차이가 있었다. 평안·함경도는 양계지방이라는 특수사정으로 인해 처음부터 임기 2년의 '率眷兼尹'(가족을 데리고 부임해서 부운을 겸함)한데 비해 이남 6도는 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처음에는 임기 1년의 '單身到界'하여 감영에 별도의 읍관을 둔 채 임기 동안 계속 도내 모든 읍을 순력하였던 것이다. 이런 行營체제에서는 선화당·징청각과 같은 감사가 집무·거처하는 상설 관아시설은 필요가 없었고, 다만 감사가 임기 일년동안 도내 열읍을 순력하는 과정에서 주영 내지 본영으로 존재하면서 도내 공사집행의 중심지, 진상·감시의 집회지, 도내 각종 公簿의 보관소(營庫)로서의 기능을 가진 데 불과하였다.

「輿地圖書」上 江原道 監營公廡 및 같은 책 原州牧 公廡條에 “과거에는 감영에 별도의 營舍가 없었다. 현종 기미년(1665)에 감사 이만영이 처음으로 營舍(선화당)를 객관의 서편에 창건하였다.”한 것을 보면 경상도도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전기에는 영사가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전기의 감영소재지인 상주에 영사시설과 같은 자취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⁸⁾

행영체제는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감사가 감영에 머무르면서 정사를 다스리는 유영체제로 전환된다. 이러한 유영체제는 감사가 집무와 거처하는 상설 관아시설이 필요하게 되면서 선화당, 징청각, 내아 등의 건축물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상감사 趙顯命의 선화당 상량문(1731년경)에 “肆變行營之制遂建布政之衙”라하여 행영의 제도가 바뀌

4) 「顯宗實錄」卷18, 11년 3월 22일(乙卯)條, 4월 1일(丁亥朔)條

5) 조현명의 宣化堂 上樑文

6) 「純祖實錄」卷9, 6년 12월 辛巳條

7) 1870년에 훼손된 대구읍성을 대대적으로 보수한 기록을 새겨놓은 비로, 비문은 관찰사 金世鎬가 지었다. 내용은 읍성의 보수와 신축, 개축 규모와 門樓·公廡의 신축, 증건, 중수규모와 公廡 各處의 보수규모를 기록하였다.

8) 대구향토문화연구소, 「경상감사」, pp18~19, 1996

면서 관청을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영체제는 술권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양계지방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술권제도는 선조 14년(1581) 이율곡의 주청⁹⁾에 따라 선조 16년 兩南의 監司도 兩界와 같이 府尹을 겸하여 술권하게 하고 만 2년이 되면 체임시킬 것을 朝議하였다.¹⁰⁾ 이에 경상감영은 선조 16년(1583)에 좌·우도의 감사를 두면서 술권하게 하였으나¹¹⁾ 선조 30년(1597)의 병란에 다시 유영을 없앴다. 잠시 안동에 유영을 두어 2년마다 감사를 교체하게 하였으며. 선조 34년(1601) 이덕형이 본부의 유영이 대구부사를 겸임하게 되면서 관관을 따로 두었다. 또 1607년 하삼도(경상·전라·충청도) 감사의 유영이 폐지¹²⁾되었으나 형식에 불과하였다. 현종 10년(1669) 6월에 감영의 법을 복설하고 그 임기를 2년으로 하였다. 그 후 경상감영은 유영과 술권의 제도가 수차례 복설과 폐지를 거듭하였는데 倭胡양란을 겪고 또 감영시설의 정비와 함께 17세기부터 面里制의 발전과 지방행정체계의 발달에 따라 감사의 久任과 兼官문제가 더욱 절실하게 논의되었다. 그 결과 영조 3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남 6도도 약간의 시간적 선후의 차이는 있으나 양계와 동일한 감영과 감사 직제를 갖게 됨으로써 비로소 8도가 명실상부한 일체화된 道制가 확립되었던 것이다.

경상도의 경우는 영조 34년(1758)부터 유영제도가 고정되면서 1894년까지 경상도 감사는 대구부사를 겸하게 되었다.¹³⁾

2-2. 경상감영의 職制

조선조 도정을 총괄하는 감사는 지방장관으로서 그 임무가 막중하였으므로 제도적으로 보좌관을 주어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감사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보좌하는 여러 기구들이 조직되어 있었다.

감영의 기구구성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 도의 행정·군사·사법의 최고 책임자인 감사와 둘째, 감사의 보좌관 임무를 띠고 중

앙으로부터 파견된 경력·도사·판관 등의 수령 관과 기타 관원, 셋째, 주로 토착민으로 구성된 吏隸職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정식의 官制는 없었으나 관찰사, 兵, 水使 또는 大邑의 수령들은 6방의 사무를 분담할 6房 裨將을 대동하고 부임하였다.¹⁴⁾

이를 다시 둘로 대별하면 감영에는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9품이상의 관원과 이 예하에서 행정실무 및 업무보조를 맡는 이예직이 있다. 이예직은 대체로 그 지방 출신자로 충당되었다. 그러므로 관원과 이예직은 행정계통상 상하관계를 유지하면서 감영의 행정사무를 맡아 보았다.

감영의 세부 행정기구는 중앙관청과 같이 이·호·예·병·형·공의 육방을 두었고, 육방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吏屬이라 하였다. 그 외에도 말단에서 천역을 지고 있는 영노비나 기생들까지 많은 인적 구성요소가 있었다.¹⁵⁾

조선 후기 경상도 감영의 기구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監司

監司는 지방행정관 중 최상위 관원으로 임무는 外憲的 기능과 方伯的 기능으로 대별되는데, 조선 전기의 行營體制에서는 6월과 12월에 모든 外官들의 치적을 평가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外憲적 기능이 강조되었으나 감사의 巡歷이 춘추 2회로 기간도 1개월 이내로 실시되는 등 점차 留營體制로 변하면서 방백적 기능이 주 임무가 되었다. 감사의 방백적 기능은 행정·사법·군사적 기능으로 나누어진다.

(2) 屬僚

都事(중5품) : 지방관의 불법을 규찰하고 장리한다.

判官(중5품) : 庶務와 부, 목, 도호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教授(중6품) : 관내 교육사무를 장리한다.

中軍(정3품) : 도내 군사사무를 장리한다.

審藥(중9품) : 감영, 병영의 의약사무를 장리한다.

檢律(중9품) : 법률의 해석, 적용 및 형률 취조를

9) 「宣祖實錄」, 선조14년 5월 병술조

10) 「宣祖實錄」, 선조16년 5월 기해조

11) 「大丘邑誌」, 監營條, 1767년경 편찬

12) 「宣祖實錄」, 선조 40년 2월 정미조

13) 「輿地圖書」下, 慶尙道 觀察使營條

14) 「牧民心書」, 卷4, 吏典驅衆條

비장은 완전한 정의를 유보하고 있으나 이회권(조선후기 지방통치행정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1989. pp34~36)은 감사의 비서관으로 국왕에게 계청하여 임용하였던 官관으로, 각 도 비장의 수는 8~10명정도로 주장하고 있다.

15) 「경상감영400년사」, p106.

장리한다.

訓導(종9품): 관내 교육사무를 장리한다.

譯學訓導(종9품): 감영, 국경 府牧 번역, 통역 및 어학을 교수한다.

(3) 吏隸職

이방: 인사, 비서, 기타 庶務를 분장한다.

호방: 호구, 貢賦, 전곡, 기타 재정사무를 분장한다.

예방: 의례, 祭祀, 학교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병방: 군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형방: 법률, 소송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공방: 工匠, 영선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감영의 하부 실무자는 소수의 관원을 보좌하여 감영의 실무를 담당한 집단으로 人吏·通引·使令(官奴와 使令)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행정업무 등 문관직의 업무를 담당한 하부실무자였으며, 이들과 별도로 군사와 경찰업무 등 무관직의 업무를 담당한 군관과 포교와 이를 보좌하였던 通引·軍牢·使令·營奴婢 등으로 하부실무자의 직제가 구성된다.

행정의 하부실무자는 행정업무를 관장하였던 吏胥계층을 비롯하여 군관과 포교계층을 상부직제로 하고 이들을 통인이 보좌하였고 통인보다 격이 낮은 사령·영노비 등의 조예직이 최하층에 이들을 보좌하는 구성을 보인다.

감영에 소속된 이서를 營吏라고 하는데 영리는 해당 도의 읍리들 중에서 능력자를 차출하여 구성한 감영의 하부 행정실무자들 중 가장 상위 직제에 해당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인적구성과 세부적 호칭은 시대와 관장업무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데 조선전기에는 호장·기관·장교·통인으로 대별되며, 16-17세기를 기점으로 六房체제로 변화되면서 이방을 중심으로 직제 변화를 겪는다. 이에 따라 업무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관장업무에 따라 色으로 구분하여 많은 종류의 色吏가 발생하게 되어 하부실무자의 직제 확대와 인원수 증가현상이 나타난다.

이서직과 더불어 감영의 하부 실무자로서 군사와 치안업무를 담당한 군교는 장관·군관 및 포교의 3종으로 나누어지며, 이들의 밑에는 일부 영인리와 사령·군퇴를 비롯한 최하부 실무보좌역으로 구성된다.

2-3. 慶尙監營의 施設과 변화

(1) 경상감영의 시설

조선후기 전국 감영의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史料 중 17세기의 것은 없으며 18세기 중엽 이후에 전국적인 비고가 가능한 「輿地圖書」를 비롯한 몇 개의 사료가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상당량의 사료가 나타난다.

경상감영의 건물구성을 알 수 있는 사료들은 「輿地圖書」, 「邑誌」, 「嶠南誌」 및 吳弘默의 「慈仁叢錄」 등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며 여기에는 감영시설의 명칭은 확인되지만 규모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기록이 거의 없다.

영조 36년(1760)에 편찬된 「여지도서」는 경상감영의 시설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다. 「읍지」는 영조 45년(1769), 순조 32년(1832), 순종 4년(1910)경에 편찬된 것을 참조하였으며, 1769년과 1832년의 읍지는 거의 유사한 내용과 명칭으로 기록되었으나 1832년의 것이 약간의 시설증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888년 당시 자인현감이던 吳弘默이 쓴 「慈仁叢錄」내용에서 오형목이 경상감영을 돌아보고 감영의 건축물을 기술하였다. 여기에는 각 건물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해 상술하고 있는데 각 건물의 명칭이 다른 사료에서 기술된 일반적인 명칭과는 다른 현지에서 사용되는 편액을 건물명칭으로 기록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일제강점기 1940년에 편찬된 「嶠南誌」와 1943년에 편찬된 「大邱府史」에서도 감영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주로 읍지를 근간으로 서술된 것으로 보인다. 「교남지」에서는 감영의 전체 규모와 일부 변용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대구부사」에서는 감영의 화재시 소실된 건물과 규모를 기록하였다.

이상의 사료들을 분류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2) 시기별에 따른 시설의 변화

경상감영의 시설들이 변화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시기를 살펴 보면 크게 4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의 기준은 직제의 변화에 의해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세차례의 화재로 인해 새로 건축하면서 시설이나 규모의 변화가 있었던

표 1. 문헌에 나타난 경상감영 시설의 비교

| | | 여지도서 (1760) | 읍지(1768) | 1806 화재 당시 | 읍지(1832) | 자인총쇄록 (1888) | 읍지(1910) | 교남지 (1940) | 대구달성 지 | |
|-------------|--------------|----------------|-------------|---------------|-------------|------------------------------|--------------|---------------|-----------|-----|
| 감사 | 정청 | 선화당 | 선화당 | 선화당 32칸 | 선화당 | 선화당 28칸 | 선화당 | 선화당 | 선화당 | |
| | 업무·주거 | 징청각 | 징청각 | 징청각 23칸 | 징청각 | 징청각 33칸 | 징청각 | 징청각 | 징청각 | |
| | 내아 | 옹향당 | | 내아 36칸 | | 내아 | | | | |
| | 부속시설 | | 여수각 | 여수각 12칸 | 여수각 옥영루 | 여수각 옥영루 제서루 | | 여수각 옥영루 | | |
| | 기타 | | | 연초당 13칸 | | 연초당 5칸 | | | 연초당 | |
| 문관 | 도사 | 유물헌 | 주홀헌 | | 주홀헌 | 주홀헌 | 주홀헌 | 주홀헌 | 주홀헌 | |
| | 심약 | | 심약소 | | 심약당 | 심약당 | 심약청 | 심약당 | 심약청 | |
| | 검물 | | 검물소 | | 검물당 | 검물당 | 검물청 | 검물당 | 검물청 | |
| | 비장 | 덕애당 | 덕애당 | 책실 | 덕애당 | 백화당 | 비장청 | 덕애당 | 비장청 | |
| | 도훈도 | 도훈도청 | 도훈도청 | | 도훈도청 | 보안당 | 도훈도청 | 도훈도청 | 도훈도청 | |
| | 군관시협소 | | 관덕당 | | 관덕당 | 고예당 | 관덕당 | | | |
| | 재가청군관 | 재가청 | 간성당 | | 간성당 | | 병방청 | 간성당 | 병방청 | |
| | 집사 | 기고당 | 교련당 | | 교련당 | 교련당 | 집사청 | 교련당 | 집사청 | |
| | 별장·천총·파 총 | 장관청 | 용일당 | | 용일당 | 용일당 | 용일당 | 용일당 | 장관청 | |
| | 별무사 | 별무사청 | 공복헌 | | 공복헌 | | 무사청 | | 별무사청 | |
| 부속 관원 | 포교 | | | | | | 별포청 | | 별포청 | |
| | 숙직 | | 부묘청 | | 부묘청 | 장교청 | | 부묘청 | | |
| | 아전 | | 인리청 | | 인리청 | 획일당 | 인리청 | 인리청 | 인리청 | |
| | 영리 | | 영리청 | | 영리청 | 주일헌 내공사청 외영방마감소 | 영리청 | 영리청 | 영리청 | |
| | 호방 | | | | | 소이재4칸 | 소이재 | | 소이재 | |
| | 풍인 | | | | | 영영아연방 | | | | |
| | 관노 | | 관노방 | | 관노방 | 관하방 | 관노방 | 관노방 | 관노방 | |
| | 지인 | | 소동방 | | 소동방 | 소동방 | 소동방 | 소동방 | 소동방 | |
| | 기생 | | 교방 | | 교방 | 영영교청 | 교방 | 교방 | 교방 | |
| | 사령 | | 사령방 | | 사령방 | 영영장방 | 사령방 | 사령방 | 사령방 | |
| 吏 隸 職 | 군뢰 | | 군뢰방 | | 군뢰방 | 영영군방 | 군뢰방 | 군뢰방 | 군뢰방 | |
| | 순령수 | | | | | 영영순청 | 순령수방 | | 순령수방 | |
| | 취고수 | | | | | 취고수청 | 취고수방 | | 취고수방 | |
| | 기타 | | | 좌우익랑 36 칸 | | 내국, 외국, 배리 청 | | | | |
| | 정문 | | 포정문· 관풍루 | | 포정문· 관풍루 | 포정문· 관풍루 | 포정문· 관풍루 | 포정문· 관풍루 | 관풍루 | |
| | 협문 | | | | | 순선문, 연빈문, 연협문, 동협문 | | | | |
| | 창고 | | | 공고 28칸 | | 호적고, 보선고, 공고, 군기고, 영 고 | | | | |
| | 중 영 | 중군 | | 웅수당 | | 제송당 | 무용당 | 제송당 | 제송당 | 제송당 |
| | | 군관 | | 술청 | | 대술청 | 장청 | | | |
| | | 도훈도 | | | | 도훈도청 | | | | |
| 사령 | | | | | 사령방 | | | | | |
| 군뢰 | | | | | 군뢰방 | | | | | |
| 기타 | | | | | 총리청 | | | | | |

16) 李義權, “조선후기 지방통치행정연구”, 1989, 전남대 박사
논문
17) 이희권, 앞 논문 p30 참조.
18) 崔榮喆, “조선시대 감영의 직제와 건축적 구성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1994, p38
19) 宣化堂 上樑文(관찰사 趙顯命 賦, 1730~1732년 부임)에 의
하면 “이전의 선화당은 초라하여 위엄이 서지 않았는데 이는
임진왜란을 당한 초기에 소박하게 건립하였기 때문이다.” 하
였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 1기 : 1601년~1670년 - 경상감영을 대구로
옮기고 하면서 1차 화재 직전까지의 기간을 말하
며, 1670년은 유영법이 복설되는 해이다. 17세기
감영의 직제에 대한 사료가 없어 이 시기의 건물
의 내용이나 규모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전국적으로도 감영의 직제 및 하급직의 수

가 조선 후기와 같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존의 국사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와 관련된 많은 시설들이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669년 보다 약간 앞선 시기에 감사의 보좌역으로 중군과 비장이 감영기구에 새로이 편입되면서 감영기구의 중요한 직제로 더욱 고정화 되는 것이 이 시기 상부직제에 나타난 변화¹⁶⁾로 감사의 권한이 조선전기에 비해서 크게 강화되었는데 이때 중군과 비장에 관련된 건물들이 새로 건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감영에서는 중군의 경우 독립된 별도의 집무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비장청도 별도로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 설치되었던 감영은 임란 초기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감영이 한동안 폐지되었기 때문에 소박한 건물이었다.

2) 2기 : 1671년~1730년 - 1차 화재 후 새로 감영을 건설하면서부터 2차 화재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는 현종 10년(1670) 유명법이 다시 실시되면서 관찰사의 권위가 강화되고 감영의 기구도 확대되나 도사의 기능이 약화된다.¹⁷⁾ 또한 관관은 대부분 해당 읍의 행정을 담당하면서 감사의 보좌관 위치를 확고히 한 반면에 감영과는 독립된 별도의 집무소인 邑衙에서 집무하는 형태로 변화를 보여 실제 감영기구에서 독립되는 전국적인 공통성을 보인다.¹⁸⁾

이 당시 경상감영의 형태와 규모는 전혀 알 수 없으나 아직은 매우 소박하게 건립¹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3기 : 1731년~1806년 - 2차 화재 후 새로 감영을 건설하면서부터 3차 화재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는 1748년 부터 경상감사는 대구도호부사를 겸하였고 감사의 유명제도가 고정되는 시기(1757~1759)로 관찰사의 권위가 더욱 강화되고 屬地의 편입 등 경제적 지원이 제도화되면서 감영의 기구도 확대된다. 또한 영조 12년(1736)에 오랫동안 무성곽상태였던 대구도호부가 석축읍성

이 축조되어 성곽을 구비한 감영이 된다. 이 무렵부터 명실공히 감영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1731년경에 건설한 선화당은 '政堂을 새롭게 바꾸고 제도를 새롭게 하였으며 옛보다 화려하게 건립하였다.'고 하였다. 그 후 유명제도가 고정되면서 선화당은 1764년에 증건하게 된다.

이 때 건립된 건물들은 여지도서나 읍지 등에 개략적인 규모가 기록되어 있는데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선화당 32칸, 징청각 23칸, 내아(응향당) 36칸, 여수각 12칸, 연초당 13칸, 심약소, 검률소, 덕에당(책실), 간성당, 부료청, 교련당(기고청), 용일당(장관청), 도훈도청, 공북헌(별무사청), 인리청, 영리청, 관노방, 소동방, 교방, 사령방, 군퇴방 등이 있었으며, 중영에는 계승당(응수당), 술청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도사의 처소인 주홀헌(유물헌)은 객사 내에 있었으며, 선무군관들의 시험장소인 관덕당은 1749년에 남쪽 성밖에 창건하였다.

4) 4기 : 1807년~조선 말

3차 화재 후 마지막으로 감영을 재건하면서 감영이 폐쇄되었던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본 글에서는 이 기간의 건축 배치상황을 복원하고자 한다.

3차 화재이후 1807년에 새로 건설한 감영의 규모는 이전의 것보다 많은 건물들이 생겨났다. 제3기와 제4기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면, 새로 생겨난 건물들은 징청각 東樓로 옥영루와 제서루가 생겼고, 징청각 주변에 호적고와 소이재가 건축되었다. 또한 영리들의 처소인 내공사청, 영리들의 숙직하는 곳인 外營房 磨勸所가 있고, 통인방, 순령수방, 취고수방, 별포청, 내국, 외국, 배리청 등이 새로 생겨났다. 中營에는 摠吏廳, 도훈도청, 사령방, 군퇴방 등이 나타난다. 이것은 조선후기로 오면서 吏隸職의 수가 많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설물의 증가 이외에도 동일 건물에서의 규모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선화당이 32칸에서 28칸으로 줄었고 징청각은 23칸에서 33칸으로 늘어났다. 都事의 집무소인 연초당은 13칸에서 5칸으로 감소하여 도사의 한직화 되어 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경상감영에서 도사는 정조대에 이르면 부임하지 않는 도사의 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순조 후반기 이후에는 도사의 거의 전

16) 李義權, "조선후기 지방통치행정연구", 1989, 전남대 박사논문

17) 이회권, 앞 논문 p30 참조.

18) 崔榮喆, "조선시대 감영의 직제와 건축적 구성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1994, p38

19) 宣化堂 上樑文(관찰사 趙顯命 씌, 1730~1732년 부임)에 의하면 "이전의 선화당은 초라하여 위엄이 서지 않았는데 이는 임진왜란을 당한 초기에 소박하게 건립하였기 때문이다."하였다.

부가 부임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그 뒤에도 계속되다가 1882년(고종19)에 이르러 도사의 직은 폐지된다.

경상감영의 여러 건물들은 3차 화재 이후에 일시에 건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고종 7년(1870)에 大丘府城은 대대적인 수리가 이루어진다. 이때 수리, 신축 또는 증건되는 건물이 총 882칸으로 경상감영에만 어느 정도의 신축과 증축 또는 보수가 이루어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 시기에 감영의 면모가 일신하여 최종적인 감영의 모습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배치구성 복원을 위한 분석

3-1. 立地

경상감영이 대구에 移置하게 된 것은 선조 34년(1601)일이다. 그 뒤 경상감영은 한 번의 이전도 없이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 대구의 土築 邑城은 임진왜란 직전(1591)에 축조되어 전란으로 파괴된 상태에서 감영이 옮겨 올 무렵은 읍성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관아도시였다. 이 당시는 대구가 변란으로 매우 황폐된 상태였고 감영이 이치될 때까지도 복구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같았으며, 성곽의 존재는 거의 무시된 상태였다고 하겠다. 그래서 감영이 이치되면서 공해를 비롯한 감영공간들이 성곽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은 채 배치되었다. 물론 복구되는 도시 모습도 구 읍성의 성곽에 구애받지 않는 형태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추세는 선화당, 징청각을 위시한 감영의 공간이 구 토축 읍성에서 벗어나 있는데서 짐작된다.²⁰⁾

이와 같은 도시조성은 영조 12년(1736)에 石城으로 재건하면서 읍성의 규모를 확대하였는데 축조된 후의 시가지 형태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가지의 간선도로가 4대문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읍성내 가로는 남문인 영남제일관에서 시작되어 객사에 이르는 가로가 남북주축간선로를 이루고, 서문에서 뻗어나온 동서 간선로는 남북 주축

로와 만나 삼교차로를 형성한다. 동서 간선로는 일단 삼교차로에서 끝난다. 이 삼교차로에서 진동문으로 갈려면 남북주축 간선로의 路端景을 이루고 있는 객사까지 직진한 후 감영의 뒷길을 따라 우회하여 동문에 연결되었다. 동문에서 나온 길은 감영의 우측을 지나 성 내측을 따라 우회하여 북문에 이른다. 읍성내의 전체적인 가로형성은 자연발생적이고 불규칙적인 요소를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삼교차로·우회로·막힌 골목들이 사용되었다.²¹⁾ 이러한 현상은 대구는 무성곽의 평지 도시였으나 성곽을 나중에 축조한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관아가 차지하는 공간은 성곽 속에 계획이 된 배치에 자리잡고 있다. 이는 비록 성곽이 없었던 때라 할지라도 구조적 배치에 균형을 이루고자 한데 있다.

경상감영은 1800년대의 읍지(그림 1)에 의하면 읍성으로 둘러진 대구도호부의 동북쪽에 감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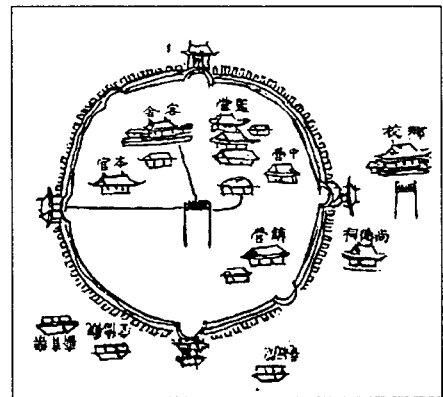


그림 1. 읍지(1832년)

자리하였는데 서북쪽에 객사를 배치하였다. 중영은 감영의 동쪽에 배치하였고, 진영은 읍성내 남동쪽에 있다. 또한 府衙는 객사의 앞쪽이며 감영의 서쪽에 건립하였다.

(그림 2)는 1903년경에 경부선 철도를 시설하기 위하여 경부철도주식회사에서 측량한 '大邱市街'²²⁾에 의하면 읍성 남문에서 북문을 연결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감영은 동북쪽에 있고, 중심도로가 끝나는 부분의 감영 뒷쪽 담 모퉁이에 도로를 경계로 객사가 있으며, 부아는 감영의 서쪽에 중심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다. 또한 중영은 감영의 동쪽에 인접하여 배치하였고, 진영은 감영

20) 「경상감영400년사」, p603. 토축 읍성은 석축 읍성보다 서쪽이거나 서북쪽에 있었으며, 구 관덕정지로 옮겨지기 전의 府衙도 석축 읍성 시절의 부아보다 서쪽 또는 서북쪽에 있었고 比定하고 있다.

21) 「경상감영 400년사」, p427



그림 2. 대구시가도(1903)



그림 3. 현재 대구시가도(구 읍성부분) A:경상감영, B:대구부아, C:객사, D:중영, E:진영, F:동문, G:서문, H:남문, I:북문, J:동소문, K:서소문, 열은 선: 구 읍성

의 정문인 포정문 바로 앞쪽에 두었다.

(그림 3)은 현재의 구 읍성지역(현 대구시 중구)의 시가도로 1903년의 가로망과 관아 및 객사 등의 부지형태와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틀은 같다.

위 (그림 1. 2.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영의 입지는 읍성 내에서 북쪽에 자리하여 읍성 중심도로변에 위치한 대지 중에 넓은 대지를 구

성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읍내 중심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필요시설의 수용이 가능한 대지면적이 입지선정의 우선조건이었으며, 부아와 객사의 관계를 고려하여 도시공간을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2. 監營의 配置

(1) 문헌에 의한 분석

경상감영의 배치구성은 「대구읍지」에 나타난 지도와 각 공간별로 건물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건물들이 어떻게 배치된 것인지는 자세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1888년 당시 자인현감이던 吳宏默이 쓴 「慈仁叢錄」내용에서 감영의 건축물을 기술하였는데, 여기에는 각 건물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해 상술하고 있어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사료된다. 그 후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시기에 日人들과 韓人의 기록에서 건물의 일부 위치가 파악되어 각 건물 위치의 교차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그러한 건물들의 일제강점기때 변용에 관해서도 알 수 있는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韓末에 제작된 지도나 안내서 등에 건물의 위치가 표시된 것이 일부 있으며, 사진을 통해서 몇몇 건물의 외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하여 건물의 위치를 비정하여 현재는 거의 없어진 건물들의 배치구성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慈仁叢錄」(구한말 자인현감 吳宏默의 일기, 1888)²³⁾의 내용을 요약

객사는 本衙의 북편에 있다. 달성관(객사)의 아래(남쪽)에는 珠笏軒이 있는데, 이는 곧 都事가 머무는 곳이다. 延賓門은 선화당 서쪽 협문이며, 문 옆에 사령 군뢰 등의 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징청각 앞문인 旬宣門이 있다. 순선문 서쪽 협문으로 서쪽 뜰을 보면, 뜰안 서쪽에는 戶籍庫가 있

22) 「京釜鐵道 韓國京城全圖」, 경부철도주식회사. 1903년. 97.8cm×68.4cm의 삽도

출처: 「영남대소장 한국의 옛지도(도판편)」, 영남대박물관. 1998. p206

23) 오형묵은 19세기말 여러지역의 수령을 거치면서 이를 일기형식의 「旌善叢錄」(1887~1888), 「慈仁叢錄」(1888~1889), 「威安叢錄」(1889), 「智島叢錄」(1895~1896) 등을 남겼는데, 이들은 장서각에 유일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 인용된 것은 「慶尙監司」(대구광역시 중구, 1996, pp45~52)에서 「자인총쇄록」의 번역한 내용의 일부이다.

고, 뜰안 동쪽에는 如水閣 편액이 있는데, 3층 계단 위에 33칸의 징청각이 우뚝 솟아 있다. 청의 동쪽은 玉靈樓이다. 선화당의 정면 편액은 약림당(藥臨堂)이며 28칸이다.

28칸의 嶺南布政門을 돌아서면 4칸의 素履齋 戶幕이 있다. 燕超堂 5칸은 징청각 뒤에 있고, 동쪽에 떨어져 百和堂이 있는데 여기가 幕府였다. 동서에는 좌우 翼廊이 있다. 외문은 蓮挾門인데 여기가 군관들의 거실이었다. 東夾門으로 나오면 中營이 있는데, 당의 편액은 撫戎堂이라 하였고, 내삼문은 撫戎門이며, 외삼문은 中營衙門이었다. 將廳은 중영의 오른편에 있고, 총리청은 중영의 서편에 있고, 영리청은 삼문밖 남쪽에 있고, 사령방과 군뢰방은 삼문 밖 북쪽에 있었다. 이營의 모든 공관은 대략 한군데 설치하였다.

內衙는 징청각 서쪽에 있고, 이청은 포정문 안 동쪽에 있는데 편명은 획일당(劃一堂)이다. 영리청은 포정문안 서쪽에 있고 편액은 주일현(主一軒)이다. 영리의 처소인 내공사청은 여수각 동쪽에 있고, 입직영리의 숙직하는 곳인 외영방 마감소(外營房 磨勘所)는 선화당 서쪽에 있다.

장교청 편액에는 嶺營外幕府라 하였고, 장관청 편액에는 用一堂, 집사청 편액에는 敎鍊堂, 회계소 통인방 편액은 嶺營亞椽堂이라 하였고, 별고는 모두 선화당 동쪽에 있다. 외삼문의 편액은 觀風樓, 또한 편액에는 嶺南布政司라 하였다. 사령방 편액은 嶺營將房, 관노방 편액은 관하방, 교방 편액은 嶺營敎廳인데 나란히 관풍루 서쪽에 있다. 군뢰방 편액은 嶺營軍房, 巡令手廳 편액은 嶺營巡廳, 吹鼓手廳은 나란히 관풍루 동쪽에 있고, 營庫 편액은 按儲軒이다. 補膳庫는 징청각 서쪽에 있고, 工庫, 紙所는 징청각 동쪽에 있으며, 軍기고는 징청각 뒤에 있다. 심약당·검률당·내국·외국·배리청·훈도청의 편액은 報安堂이며, 兼濟庫·營繕·雇馬庫·節扇所·各 匠色處所가 늘어진 곳은 관풍루 내외 도서에 있다. 修城創은 동문 안에 있다.

2) 「大邱一斑」(1911. 三輪如鐵 著)

성내 중앙지에 일본 서원건물과 닮은 큰 건물이 있는데 관찰사의 정청이다. 정면의 것을 선화당이라 하고, 그 뒤쪽에 자리하는 것을 징청각이라 부른다. (중략) 관찰부 정전의 전후좌우에 즐비하게 서 있는 큰 집들이 있다. 배후에는 거의가 가족의 주택이고, 앞쪽은 각부의 집무옥사가 있다.

관찰부의 정문 앞에는 서향으로 앉아 있는 넓은 옥사가 있다. 이것은 옛날 軍營이다. 장교의 사옥은 별도로 몇채가 있다. 군영을 제외한 관찰부의 부지는 8000여평이 되고 제집무사옥의 건평은 적어도 그것의 1/3이 된다. 현재는 선화당, 징청각을 관찰사의 집무처로 하고 있다. 재무감독국은 內房 즉 부인의 주택을 헐어서 신축한 것이다. 토지조사국의 출장소도 옛 내방의 하나이다.

3) 「大邱民團史」(大邱府編纂, 1915)

일본 거류민단 역소의 자리가 중영의 제승당이라 했다.

4) 「大邱邑誌」(徐錫台, 1924)

1924년 전후에 일본 경무부 헌병대자리가 징청각이고 신축된 경찰서는 구 본부사의 동쪽이고 거류민단 역소는 구 중영사이다. 조선보병 제2연대는 구 관덕당이고 조선 제3연대는 구 鎮營 舍이고 제 3연대 9·10중대는 구 南營舍이고 헌병분대는 구 선화당이다.

5) 「大邱物語」(河井朝雄 著, 朝鮮民報社, 1931)

경상북도 감찰부는 지금의 경상북도청의 구내 일대이며, 남쪽에 정문이 있고 동쪽에 통용문이 있고 북쪽에 두 개의 뒷문이 있다. 정문은 관풍루라 했고 달성공원에 옮겨져서 겨우 보존되고 있다. 위치는 헌병대 본부 뒷 뜰에 있었다. 우편국 부속건물과 헌병대로 말미암아 옛 정문 도로는 폐쇄되어 있다. 관풍루에서 30보 남쪽에 「節度使 以下下馬」의 석표가 세워져 있다.

선화당, 징청각은 정전이다. 옛날에는 관찰부 아래에 중영, 친군남영, 도호부전보사가 있었다. 관찰부는 한 도의 사법, 행정의 권한을 장악하고 중영은 경찰사무를 담당하였으며 지금의 경찰부장급을 營將이라 했다.

6) 「大邱達城誌」(大邱達城誌編纂委員會, 1972)

達城館: 부의 북쪽 성내에 있었으며 일명 客舍라 했다. 관내에는 팔달헌, 주홀헌, 대비헌이 있다. 康熙 2년(1908)에 훼손되어 길이 되었다.

監營舍의 舍內에는 선화당, 징청각, 관풍루, 연초당, 소이재 등이 있고, 부속건물로는 비장청, 심약청, 검률청, 병방청, 집사청, 장관청, 도훈도청, 별무사청, 영리청, 인리청, 소동방, 관노방, 교방, 사령방, 군뇌방, 순령수방, 취고수방, 별포청이 있다.

南營은 종로 동편에 있었고, 이 남영은 한말까지 營門과 군대가 남아 있었다.

鎭營舍는 府의 동쪽인 射觀洞에 있었고 營將이 거처하는 곳이다. 舍內에 撫戒堂과 부속건물이 약간 있었다.

中營舍는 감영 동쪽에 있었고 中軍이 거처하는 곳이다. 舍內에 制勝堂과 부속건물이 약간 있었다.

(2) 可視의 자료에 의한 분석

경상감영의 배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가시적 자료는 지도와 사진으로 나타난다. 지도는 조선시대의 읍지에 나타난 것과 근대적 수법으로 제작된 1903년 이래 1927년 사이의 지도를 중심으로 감영의 배치형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4)²⁴⁾는 18세기에 제작된 고지도로 읍성이 축성되기 전의 모습으로 감영, 부아, 객사, 진영,



그림 4. 18세기 초의 대구지도

중영의 위치가 개략적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감영의 아래 진영이 위치하고 있고, 감영의 좌하부에 중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아의 명칭이 '貳衛'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 5)는 19세기의 읍지의 것으로 감영, 부아, 객사, 진영, 중영의 위치가 개략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림 1, 4)과 기본적인 틀은 같으며, 포정문 앞에 홍살문의 존재가 나타난다. 중영의 위치가 감영의 아래에 진영과의 사이에 그려져 있는 것이 (그림 1)과의 차이점이라 하겠다.

(그림 6)은 (그림 2)의 감영부분을 확대한 것으로 감영의 시설들이 일부나마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중요한 자료로 보여진다. 최초의 감영의 모

습을 측량한 것으로 의미가 있으며, 감영내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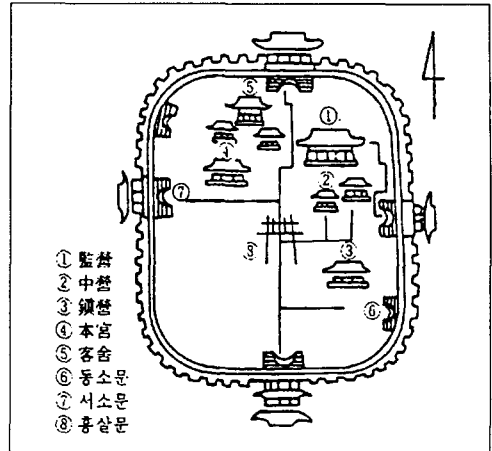


그림 5. 19세기읍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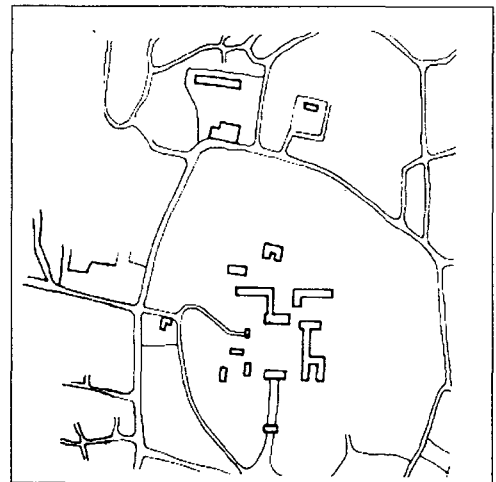


그림 6. 1903년의 경상감영배치

당수 건물들이 작도되어 있다.

여기에는 선화당, 징청각, 여수각, 관풍루와 포정문이 보이며, 징청각 뒤편에 연초당과 덕애당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보인다. 또한 선화당 동쪽에 커다란 건물군이 보이고, 징청각 동쪽에 내공사청, 선화당과 포정문사이에 영리청으로 추정되는 ㄷ자형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1903년경의 경상감영은 고종 32년(1895) 지방제도의 개편으로 경상남북도로 분도되어 경상북도의 감영으로 남았는데 이 상태는 1910년 한일합방때 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감영건축에는 이미 변화가 이루어졌다. 1899년 대구 최초 근대학교인 달성학교가 감영의 선화당과 대지 700여평을 사

24) 大邱古地圖 (李濂, 「韓國의 古地圖」, 범문사, 1991)

용하였으며 정청각이 헌병대 건물로 사용되는 등 용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기존의 건물들은 대부분 존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도에는 많은 건물들이 생략되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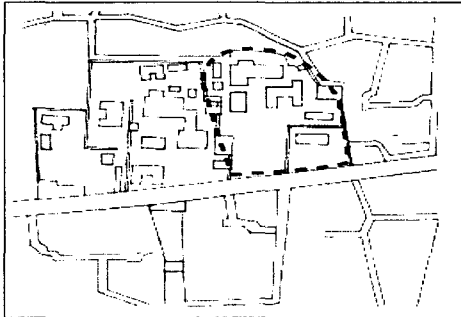


그림 7. 1917년의 경북도청(점선부분이 일제때 신축한 경북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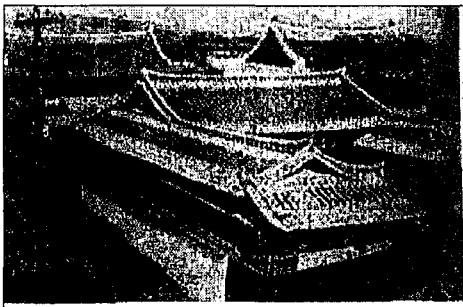


그림 8. 영리청으로 추정되는 경북 경무부건물 (1917년경 사진으로 뒤쪽에 선화당과 정청각이 보인다)



그림 9. 일제때 신축한 경북도청

(그림 7.)²⁵⁾은 1917년경에 제작된 지도로 경북도청의 모습이다. 아직 부아·감영 일대에 남아

있는 관아건물의 배치상태를 볼 수 있다. 또 내삼문에 걸쳐서 도로가 개설되었다. 이 시기의 지도에는 선화당과 정청각 영역이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오른쪽에 신축한 도청의 건물들이 보이고 있다. 선화당과 정청각의 주변에도 (그림 6)에서 보다 많은 건물들이 표시되어 있어 담장내에 배치된 건물들은 경상감영 시절에 사용된 건물일 가능성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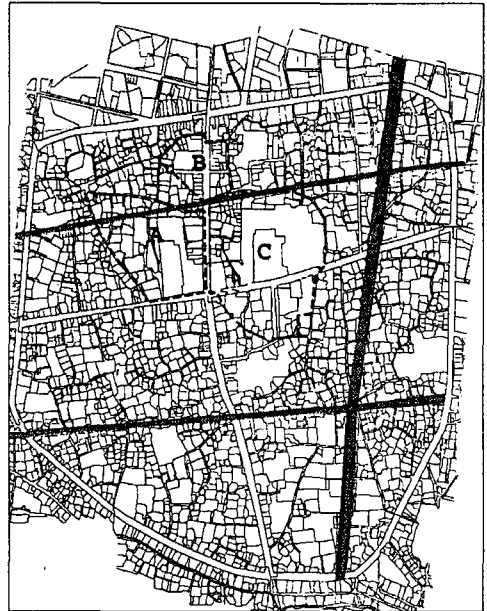


그림 10. 1929년의 대구시가지도(A:대구부아, B:객사, C:경상감영)

(그림 10)은 1929년경의 대구 지적도²⁶⁾로 1903년에 작성된 지도보다는 가로망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감영·부아·객사가 있던 자리는 대개 넓은 부지로 남아 있다. 그러나 대지의 일부는 도로로 개설되었거나 인접지 토지소유자에 의한 침식으로 부지는 많이 좁아져 있다.²⁷⁾

(그림 11)은 1907년경에 관풍루 밖에서 찍은 사진으로, 관풍루와 내삼문 사이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내삼문은 중앙이 솟을대문으로 그 옆에 부속채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지도와 사진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

25) 「1917년의 대구」, 자연환경연구원, 한수당, 1993

26) 「경상감영 400년사」, p622에서 재인용

27) 「大邱物語」, 河井朝雄, 朝鮮民報社. 1931



그림 11. 1905년, 밖에서 본 관풍루와 내삼문사이의 건물군

상감영의 기본적인 배치 구조는 18세기 이래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1903년경의 지도에는 중요 건물만 나타나 있으나 1917년의 지도와 1907년경에 찍은 사진을 볼 때 선화당, 징청각 주변과 내삼문과 관풍루 사이에도 많은 건물들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내용을 토대로 감영건물의 위치를 재구성하면 다음(그림 14.)와 같다.

3-3. 배치구성의 분석

대구의 관아는 크게 客舍, 監營, 府衙, 鎮營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감영공간은 업무 중심공간, 업무지원공간, 경찰·군사업무공간 및 진입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進入空間

조선시대 감영의 진입공간은 布政門·中三門·內三門으로 구성되는 三門構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²⁸⁾ 경상감영의 경우는 문구성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으나 「慈仁叢錄」에 의하면 포정문²⁹⁾과 관풍루라는 내용이 있으나 중삼문이라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1903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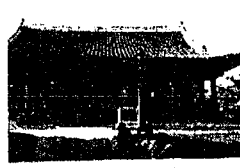


그림 12. 선화당



그림 13. 징청각

1917년경에 작성된 대구지도에는 관풍루와 내삼문만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아 경상감영의 진입공간은 2문구성으로 이루어 졌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1832년에 간행된 대구 읍지의 그림에 의하면 관풍루 앞에 홍살문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것이 외문의 의미를 가진다면 3문구성이라 할 수도 있다.

관풍루와 내삼문 및 선화당은 직선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진입공간의 좌우에는 부속시설들이 줄지어 배치되었다.

(2) 業務中心空間

업무중심공간의 주요건물은 선화당과 징청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부속관원들의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다.

선화당은 감영의 중요행사와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진입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내삼문을 통해 선화당에 이르게 된다.

징청각은 감사의 휴식하고 거처하는 곳으로 선화당의 뒤편에 배치되어 있다. 이 공간은 감사의 업무와 휴식에 관련된 시설이 주된 것으로 진입공간과 더불어 감영의 중심 축으로서의 영역을 구성한다.

경상감영의 경우는 선화당과 징청각은 담장으로 구획 분리되어 있었으면서 누각인 여수각이 있어 이 건물들을 연결하고 있다. 선화당 영역에는 내삼문과 선화당 사이에 해당하는 곳으로 여기에는 영리청, 이청, 장교청, 장관청, 집사청 등 업무과 직접 관련된 부속관원의 시설들이 배치되어 감사의 적극적인 업무공간으로 볼 수 있다. 징청각 영역에는 징청각 뒤편에 도사의 집무실로 보이는 燕草堂과 비장의 집무공간인 白和堂이 있었으며, 영리들의 처소인 내공사청과 영리들의 숙직하는 곳인 外營房 磨勘所가 징청각의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징청각의 동쪽에 玉靈樓와 制署樓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으며, 內衙는 징청각의 서쪽에 위치하여 감사의 휴

28) 최영철. 앞 논문. p103

29) 「자인총쇄록」에는 외삼문의 편액은 '嶺南布政司', '觀風樓', '嶺中制閘'이라 하였고, 내삼문에 대한 정확한 명칭의 언급은 없다. 그러나 '布政門'이라는 명칭이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외삼문의 명칭으로 보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렇게 보기에 힘든 부분들이 있다. 그 이유는 포정문의 규모가 28칸이라 한 점인데 외삼문인 관풍루는 정면 3칸이며, 1905년도의 관풍루 사진에 의하면 내삼문의 부분이 어렴풋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내삼문 옆에 문간채가 좌우로 길게 붙어서 28칸 규모와 비슷하게 보인다. 또한 자인총쇄록의 설명과 1903년도 지도에 나타난 배치도와 대조해보면 포정문이 내삼문일 때 설명이 일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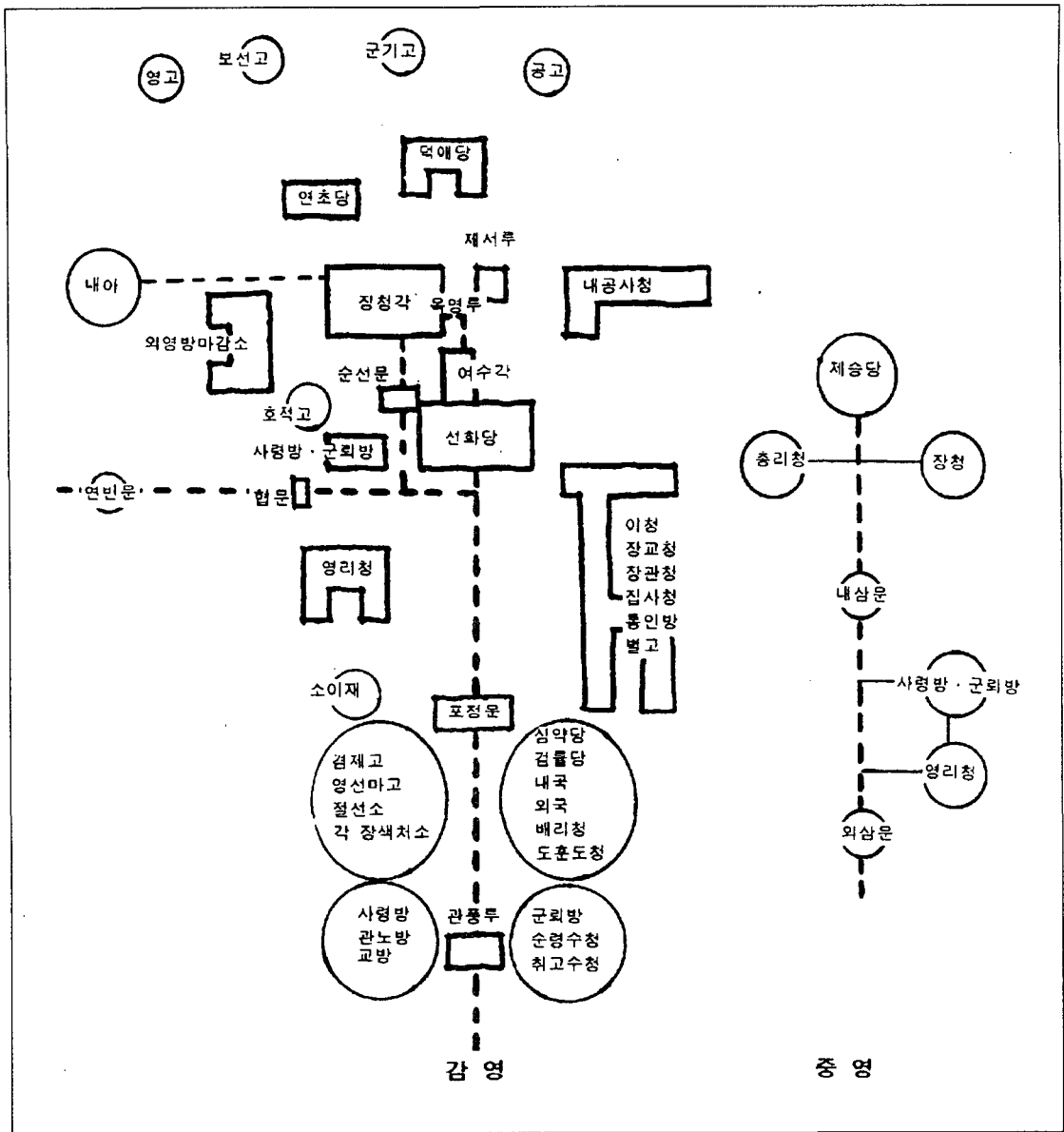


그림 14. 배치복원 개념도

식과 가족들을 배려하였다. 이로 보아 정청각 영역은 감사의 업무가 선화당 영역보다는 소극적인 업무공간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사와 하부실무자를 연결하는 비장청이 이 공간에 위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타도의 경우는 선화당과 삼문사이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던데 경상감영의 경우는 타도와의 차별성이 뚜렷하다.

이외에도 많은 창고들이 정청각 주변에 배치되었는데, 정청각 안마당 서쪽에는 戶籍庫가 있는데,

호적고는 창고시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인식되어 政廳 영역에 인접되거나 정청 영역 내에 배치되는 창고시설로 전국 감영에도 공통된 배치를 보이고 있다. 補膳庫는 정청각 서쪽, 工庫, 紙所는 정청각 동쪽, 軍器庫는 정청각 뒤에 두었는데, 이는 정청각 영역내 인지 담당 밖인지의 자세한 언급이 없다. 정청각 영역내이면 호적고만 정청공간에 두는 타도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말단 보좌역인 통인방(嶺營亞椽堂)은 업무의 성격

상 선화당 영역에 두었다.

정청영역은 감사의 공간으로 감사의 업무, 휴식 및 업무와 직접 관련된 관원들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화당 영역은 감사의 적극적 업무공간, 징청각 영역을 소극적 업무공간으로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業務支援空間

업무지원공간은 주로 하부실무자 및 말단 보좌역등의 吏隸織의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영역은 대체로 관풍루와 내삼문 사이의 좌우에 배치시키고 있다.

하부실무자를 보좌하는 말단 보좌역의 시설에는 통인방, 사령방, 관노방, 교방, 순령수청, 취고수청, 배리청, 각 장색처소 등이 있다. 사령방, 관노방, 교방, 순령수청, 취고수청은 나란히 관풍루 동쪽에 있으며, 내국, 외국, 배리청, 절선소, 각 匠色 처소도 관풍루 내외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부속관원인 審藥과 檢律의 집무시설이 이 공간에 배치된 것이 특이한데 이것은 감사의 주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한 창고시설들을 선화당과 징청각 주변에 배치시키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은 관풍루 근처에 배치시키고 있다. 이 공간에 배치된 창고 시설들은 검제고, 영선, 고마고, 별고 등이 관풍루 주변에 있다.

(4) 警察·軍事業務空間

감영의 업무 중의 하나는 경찰 및 군사업무이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中軍이라 하고, 중군의 집무시설은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여 中營으로 불렸으며 감영밖에 배치되어 별도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중군은 늦어도 1641년 이전에 전국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경상감영의 중군도 인조조에 신설되었다.

경상감영의 중영은 선화당의 동쪽에 별도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중심건물은 制勝堂이며, 부속 관원시설은 제승당 앞에 있었는데 장청은 중영의 오른쪽에 있고, 총리청은 중영의 서편에 있어 중영의 공간내에 배치되어 있었다. 정문은 외삼문과 내삼문의 2문 구성으로 되어있었다. 하부직인 사령방과 군뢰방은 삼문밖 북쪽에 있고 영리청은 삼문밖 남쪽에 있어 신분에 따라 영역을 달리 했

다.

4. 結論

경상감영은 1601년 감영처로 고정되어 한일합방 때까지 세차례의 화재를 겪으면서 규모의 변화가 이루어져왔는데, 전체적인 틀은 1807년에 이루어 졌으며, 1874년에 公廡들을 수리 또는 증건하여 이 때가 감영의 최종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상감영의 시설들을 파악하고 배치구조의 개념을 복원하여 공간구성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대구부의 관아는 크게 客舍, 慶尙監營, 大丘府衙 및 鎭營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영은 읍성 동북쪽에 있고, 감영의 서북쪽 담 모퉁이에 객사가 있으며, 부아는 감영의 서쪽에 길을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다. 중영은 감영의 동쪽에 위치하여 일곽을 이루고 있으며, 관풍루 앞쪽에 鎭營을 설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경상감영의 시설들의 변화를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1기 : 1601년~1670년 - 경상감영을 대구로 옮기고 나면서 1차 화재 직전까지의 기간으로 대구에 설치되었던 감영은 임란 초기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감영이 한동안 폐지되었기 때문에 보잘 것없는 소박한 건물이었다. 또한 감영의 직제 및 하급직의 수가 조선 후기와 같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그와 관련된 많은 시설들이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군과 비장에 관련된 건물들이 새로 건축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중군은 독립된 별도의 집무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2) 2기 : 1671년~1730년 - 이 시기는 현종 10년(1670) 유영법이 다시 실시되면서 관찰사의 권위가 강화되고 감영의 기구도 확대되나 都事의 기능이 약화된다. 또한 관관은 감사의 보좌관 위치를 확고히 한 반면에 감영과는 독립된 별도의 집무소인 邑衙에서 집무하는 형태로 변화를 보인다. 이 당시 경상감영의 형태와 규모는 전혀 알 수 없으나 아직은 매우 소박하게 건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3기 : 1731년~1806년 - 2차 화재 후 새로 감영을 건설하면서부터 3차 화재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는 감사의 유영제도가 고정되는 시기(1757~1759)로 관찰사의 권위가 더욱 강화되고 감영의 기구도 확대되어 많은 건물들이 건축된다. 또한 영조 12년(1736)에 오랫동안 무성곽상태였던 대구도호부가 석축읍성이 축조되어 성곽을 구비한 감영이 된다. 이 무렵부터 명실공히 감영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4기 : 1807년~조선 말 - 3차 화재 후 마지막막으로 감영을 재건하면서 감영이 폐쇄되었던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차 화재이후 1807년에 새로 건설한 감영의 규모는 이전의 것보다 많은 건물들이 생겨났다. 이것은 조선후기로 오면서 吏隸職의 수가 많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3. 배치복원 개념도는 (그림 14)와 같이 나타나는데, 3번의 화재로 인한 건축을 하였으나 기본적인 공간의 구성은 늦어도 18세기 초반이래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 감영의 공간을 진입공간, 업무중심공간, 업무지원공간, 경찰·군사업무공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입공간은 외삼문인과 내삼문으로 구성된 2문형식으로 보여진다.

둘째, 업무중심공간은 감사와 부속관원 및 하부실무자들의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간은 선화당 영역과 징청각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선화당 영역은 적극적인 업무시설들로 구성되어 있고, 징청각 영역은 휴식시설들을 위주로 한 소극적인 업무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업무지원공간은 하부실무자와 말단 보좌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영역은 대체로 포정문과 관풍루사이 좌·우에 배치시키고 있다.

넷째, 경찰·군사업무공간은 中營으로 선화당의 동쪽에 별도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감영의 공간구성은 업무성격에 따라 신분별로 배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慶尙道邑誌」, 아세아출판사, 1872
2. 대구시 중구, 「慶尙監司」, 1996
3. 「大邱府邑誌」, 사본, 1768
4. 三輪如鐵, 「大邱一班」, 1911

5. 徐錫台, 「대구읍지」, 1924
6. 대구부편찬, 「大邱民團史」, 1915
7. 河井朝雄, 「大邱物語」, 조선민보사, 1931
8. 대구달성지편찬위원회, 「大邱達城誌」, 1972
9. 대구시사편찬위원회, 「대구시사」, 1973
10. 趙泳鉢 외, 「경상감영 400년사」, 대구광역시 중구, 1998
11. 대구향토문화연구소, 「慶尙監司」, 1996
12.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13. 張明洙, 「성곽의 발달과 도시계획연구」, 학연문화사, 1994
14. 李義權, “조선후기 지방통치행정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1989
15. 崔榮喆, “조선시대 감영의 직제와 건축적 구성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1994
16. 김종영, “조선시대 관아 건축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1988

A Study on the Dispositional Structure of Kyungsang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KamYoung) in the late 19th century.

Cho, Young-Wh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struction of Kyungsang KAMYOUNG in the late Chosun dynasty by restoring its constructive system and relating it with the office organization.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this study.

1. Government office of Daegu consists of inn(KAEGSA), Kyungsang KAMYOUNG, and Daegu city hall(BUA), and JINYOUNG.

2. The layout of virtual placement is shown in the <Figure-11> in the text. Even though it had been newly constructed due to three times of fire, the fundamental scheme of space is found out not to have been changed since mid-eighteen century at the latest.

3. Followings are the result of analyzing the space of KAMYOUNG, after dividing its space into entry area, main business area and police · military business area in the aspect of business.

First, entry area consists of 2 door system with external door(UOISAMMUN) and internal door(NAESAMMUN).

Second, main business area consists of facilities for inspector, public officials, and low grade employee respectively. This space is divided into SUNHWADANG area and JINGCHONGKAK area, and the former consists of active business facilities, and the latter consists of passive business facilities focusing on the rest facilities.

Third, business support area consists of facilities for low grade employee and minor assistant respectively, which are placed to the left and right of POJONGMUN and KWANPUNGRU.

Fourth, police · military business space is in middle(JUNGYOUNG) and forms separate areas to the east of SUNHWADANG.

Accordingly, it is certain that the space of Kyungsang KAMYOUNG had been placed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business per position.